

팬데믹 2년간 창출된 부 63% 상위 1% 슈퍼리치가 차지

옥스팜 “1% 부자들이 차지한 금액 99%에게 돌아간 금액의 2배”

각국 정부에 부유층·대기업 과세 등 불평등 해소 위한 행동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휩쓴 지난 2년간 새로 창출된 부(富)의 63%를 상위 1% 슈퍼리치가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이 차지한 금액은 나머지 99%에게 돌아간 금액의 2배에 가까웠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16일 다스포럼 개막에 맞춰 발표한 ‘슈퍼리치의 생존’(Survival of the Richest) 보고서에서 극단적 부와 빈곤이 25년 만에 동시에 증가하는 가운데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각국 정부에 부유층 과세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가브리엘라 버커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지난 40년간의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물결은 모든 배가 아니라 초호화요트만 들어 올렸다”며 “슈퍼리치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가 현재의 이 중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지금은 부유층 세금 감면이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화를 깨뜨릴 때”라고 말했다.

옥스팜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지

난 2년간 전 세계에서 42조 달러의 새로운 부가 창출됐고 이 중 26조 달러(63%)가 세계 상위 1% 슈퍼리치에게 돌아갔다. 나머지 99%의 몫은 16조 달러에 불과했다.

이 기간 하위 90%가 새로 창출된 부에서 1달러를 벌기 위해 쓰는 시간에 상위 1% 억만장자의 재산은 약 170만 달러씩 늘었다. 지난 10년간 세계 억만장자의 수와 이들이 지닌 재산은 배로 증가했다고 옥스팜은 지적했다.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지난해 식품·에너지 산업의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급증했다. 95개 에너지·식품 회사의 이익은 지난해 2배 이상 늘었고, 이들 기업은 306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이익의 84%(2570억 달러)를 부자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월마트의 절반을 소유한 월턴 가문(Walton Family)은 지난해 85억 달러(약 10조5500억원)를 벌어들였고, 인도의 에너지기업 소유주 가우탈 아다니의 재산은 작년에만 420억 달러(약 52조 1000억원)가 증가했다.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이처럼 급증하는 동안 최소 17억 명의 세계 노동자들은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국가에 살고 있으며, 세계 인구 10명 중 한 명꼴인 8억2000만 명이 이상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은행(WB)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평등과 빈곤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빈국들은 의료서비스보다 부채 상황에 4배나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전 세계 정부의 4분의 3이 긴축정책으로 보건·교육 등 공공부문 지출에서 향후 5년간 7조8000억 달러를 감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옥스팜은 지난 수십 년간 기업과 억만장자 세금 감면이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많은 국가에서 억만장자보다 빈곤층의 세율이 더 높으며 기업과 억만장자가 공공자금과 폭리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세금 인상을 요구했다.

예컨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인 일론 머스크의 경우 2014-2018년 적용된 ‘실질 세율’이 3%에 불과했던 반면, 한 달 소득이 80달러인 우간다의 밀가루 상인 에버 크리스틴이 부담한 세율은 40%에 달한다고 옥스팜은 설명했다.

또, 세금 1달러당 부유세 비중은 4센트에 불과하고 억만장자의 절반은 직계후손에 대한 상속세가



“화석연료 사용 중단하라”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알핀 리조트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앞두고 기후활동가들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올해 53회째인 이번 다보스포럼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4박 5일간 열린다. /연합뉴스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아프리카 전체 GDP보다 많은 5조 달러의 재산이 세금 없이 다음 세대로 이전된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 팬데믹 위기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대한 일회성 부유세·황제세 도입 ▲ 상위 1%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60% 소득세 적용 ▲ 상위 1% 부유세를 통한 슈퍼리치 수와 재산 축소 등을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네팔 포카리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2명 등 72명 탄 네팔 항공기 추락

당국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탄 항공기가 15일(현지시간) 네팔 중부 포카리에서 추락, 탑승자 중 68명 이상이 사망했다. 당국은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16일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15일 오전 10시 30분께 네팔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네팔 에티항공 소속 ATR72기가 도착지 카스키 지역 휴양도시 포카리의 공항 인근 강 부근에 추락했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72명이 타고 있었다.

네팔 당국은 추락 사고 발생 직후 수색 첫날 시신 68구를 발견했으며 아직 4명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

한 상태다. 한국인 탑승자는 40대 유모씨와 그의 10대 아들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는 우리 교민인 영사 협력원이 급파됐으며 영사 또는 공관원 등도 조만간 도착할 예정이다. 네팔 당국은 구조헬기를 추락 현장으로 투입했으며 수백 명의 구조대원이 산비탈 추락 지점을 수색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등이 있는 네팔에서는 기상 상황이 수시로 바뀌면서 항공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특히 포카리는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14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휴양 도시로, 평소 현지 항공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착륙이 까다로운 곳으로 악명이 높다. /연합뉴스

바이든 집·사무실서 기밀문건 발견...특검 임명 ‘일파만파’

공화당 의회 차원 조사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인 공간’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문건이 잇달아 발견되며 가열되고 있는 유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두 차례 문서 유출이 드러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 델라웨어 윌밍턴 사저에서 또 다른 기밀 표시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백악관이 확인하며 파문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 전날인 15일(현지시간) 고인이 암살전까지 활동했던, 대표적 흑인교회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벤에셀 침례교회를 방문,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 연설을 하고 공개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문건 유출의 파장에 유감을 표하면서

도 특검 임명으로 본격적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파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긋기에도 집중했다.

앞서 지난 12일 메리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수석차관보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직 검사인 한국계 로버트 허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해 수사를 맡겼다.

이어 시프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매우 상반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문건을 가지고 있거나 은폐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사법부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없었다”고 변론했다.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은 “이 문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경계하며 “기밀문서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8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

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특검 수사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한 의회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는 공세를 펼치며 의혹 부풀리기에 집중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 개인 공간에서 발견된 기밀문서와 관련해 의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감독위원장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임명됐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이고, 기밀 접근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여전히 사저를 뒤지고 있다”며 “그곳은 범죄 현장일 수도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 윌밍턴 사저를 ‘범죄 현장’으로 언급했다.

코머 위원장은 “우리는 국가기록원, 법무부에 물어볼 것이 많다”며 “조만간 답을 듣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중국, 독일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

일본 320만대 수출 1위

중국 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2021년보다 54.4% 증가한 311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1위 수출국은 일본으로, 자동차 산업 분석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작년 1~11월 일본은 32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일본은 2021년에는

382만대를 수출한 바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2021년보다 54.4% 증가한 311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수출 증가는 전기차 판매 덕분이었다. 지난해 중국은 2021년보다 120% 증가한 67만9000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다.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 규모는 전체 자동차

생산(2700만대)의 11.5%를 차지한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 실적은 261만대로 집계됐다.

중국은 2009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올라섰다.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BMW 등 외국 완성차업체들이 오랜 기간 시장을 장악했지만, 비야디(BYD)나 지리(Geely) 등 토종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산층권은 중국 자동차 수출이 2030년 550만대에 이르고 그중 250만대가 전기차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왕복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왕복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전상하**
 공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